Murray State University 머레이 주립대

2022 Spring Semester 교환학생 파견 후기

지질환경과학과 조성경

1. 파견 준비

1. 서류 준비

입학허가서를 받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비자는 J1비자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예상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해 갔습니다. 입학허가서는 머레이대학에서 원본을 보내줬고 저에게 서류를 보냈다는 메일을 받은 뒤 약 2주 정도 후에 도착했습니다. 비자는 인터뷰 통과 후 다음날 택배로 받았고 착불로 만 사천원을 냈습니다. 비자 신청 방법은 네이버에 있는 글들을 참고했습니다.

2. 항공권, 짐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미리 메일로 정보를 받았고 개강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미리 도착했습니다. 왕복 비행기로 미리 끊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강 할 때쯤 비행기 날짜를 바꾸려고 보니 한국행 비행기 자리가 얼마 없었습니다. 머레이로 가려면 내슈빌 공항(BNA)으로 가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야 했는데, 셔틀은 미리 신청을 해야하고 75달러가 나중에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공항을 경유해서 내슈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짐은 최대한 적게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월마트에서 구할 수 있었고 저는 돌아갈 때 여름이 되어서 겨울 옷을 미리 보내야했는데 짐을 조금 적게 가져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기숙사에 짐을 뺄 때 기숙사 1층에 물품들을 기부하는 곳이 있었고 항공기 짐 무게 제한 때문에 거의 다 기부하고 왔습니다.

2. 학교 생활

2-1. 수강신청

미리 수강신청을 하라고 알려줬고 선착순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꼭 들어야 하는 강의인데 신청하지 못했다면 담당교수한테 메일을 보내면 넣어줄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12학점을 수강했는데 미리 강의계획서를 보고 필요한 책이나 자료가 있는지 담당교수님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15학점이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성적을 잘 주려고 했고 과제에 대해서도 편하게 물어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전공 수업만 들었지만 교양수업들은 과제가 더 적고 수업도 쉽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 기숙사

기숙사는 미리 신청해야 했는데 따로 기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수시로 신청 사이트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컬리지 코트와 일반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종류도 많아서 고르는데 고민을 해야하니 미리 알아보고 정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Hart College에 살았고 약 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위치가 식당 바로 앞이고 수업하는 건물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비는 주변 기숙사 중에 제일 쌌지만 건물은 약간 노후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학기보다 더 오래 계신다면 on campus는 방학 때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짐을 빼야 하기 때문에 College court나 Station74 같은 곳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ollege court는 일반 원룸 같은 곳이라면 on campus 기숙사는 룸메이트와 지내야 하고 주방을 사용하는 것이 은근 불편하기 때문에 식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기숙사 별 비용, 사진, 행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2-3. 학교식당, 카페

기숙사에 처음 체크인 할 때 학생증 카드를 받았고 이 카드에 Flex 머니를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음식점에서 결제를 할 경우 세금이 붙지 않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되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Winslow식당, 스타벅스, 아인슈타인 베이글, market22(편의점), fast track(편의점), Chick-fill-A 등등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굳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메뉴를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Chick-fill-A

에서 파는 햄버거 세트가 약 9달러 정도고 단품은 약 5-6달러 정도 했습니다. 사실 Winslow 식당이 가장 편하고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침은 약 7달러, 점심은 약 10달러, 저녁은 약 13달러기 때문에 저는 점심에 가서 저녁에 먹을 것까지 To-go 박스에 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비를 꽤 아낄 수 있었습니다. Winslow는 뷔페 형식이고 원하는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일 점심이나 저녁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식비를 아끼고 싶다면 월마트에서 빵이나 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4. 도서관

도서관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늦게까지 운영합니다. 야외, 지하, 1층, 2층이 있고 자리가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1층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마다 1층에 프린트기가 있는데 도서관에 여러대가 있고 가끔 기숙사에 있는 것들은 고장이 나서 도서관에도 프린터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는 한 장에 약 0.2달러 정도고 플렉스카드에 따로 프린트달러를 충전해야 합니다.

2-5. 체육관

기숙사들이 모여있는 곳 근처에 체육관이 있는데 런닝머신, 운동기구, 요가, 수영장, 농구장 등이 안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커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 운동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 오후에 가면 런닝머신에 자리가 없으니 시간을 잘 맞춰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후기 - 머레이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 주변에 놀거리가 거의 없지만 비교적 안전합니다. 학교행사에 참여하거나 교내 친구들과 놀아도 충분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도시생활을 원한다면 추천하지 않지만 머레이에서는 미국 대학 생활을 체험하고 현지 친구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끼려고 마음 먹으면 한달에 30만원 정도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전 준비에 여러 도움을 주셨던 국제교류본부 방희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